

제 1 교시

국어 영역

[현대 소설]

(수능 특강 - 채만식, 「논 이야기」 // 고1, 2014.03)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덕문은 빗을 갖고도 눈을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속셈으로 일 본인 길천에게 자신의 눈을 판다. 하지만 길천으로 인해 땅값이 비싸지는 바람에 눈을 더 구입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리하여 한덕문은 눈 일곱 마지기로 겨우 빗 권 냥을 갖고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이 손 싹싹 털고 나선 셈이었다. 친구가 있어 한덕문을 책하면서 물었다.

“어떡허자구 눈을 판단 말인가?”

“인제 두구 보게나.”

“무얼 두구 보야?”

“일인들이 다 쫓겨 가면, 그 땅 도로 내 것 되지 갈 테 있던가?”

“쫓겨 갈 놈이 눈을 사겠나?”

“저이 놈들이 천지운수를 안다든가?”

“두구 보래두 그래.”

한덕문은 혼자 속으로는 아뿔사, 논이래야 단지 그것뿐인 것을 팔고서 인제는 송곳 꽃을 땅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 한단 말이냐고 심히 후회하여 마지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더러는 그렇게 배포 있어 장담을 탕탕 하였다. 한덕문은 장차에 일인들이 쫓겨가 가리라는 것을 확인할 아무런 근거도 가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자신도 없었다. 오직 그는 눈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싸기 위하여 그런 희떠운* 소리를 한 것일 따름이었다.

한덕문이, 일인들이 다 쫓겨가 가면 그 눈이 도로 제 것이 될 터이라서 눈을 팔았다고 한다더라, 이 소문이 한입 두입 퍼져자 듣는 사람마다 그의 희떠움을 혹은 실없음을 웃었다.

하는 양을 보느라고 위정*

“자네 눈 팔았다면서?” 한다 치면

“팔았지.”

“어째서?”

“돈이 좀 아쉬워서.”

“돈이 아쉽다고 눈을 팔구서 어떡허자구?”

“일인들이 다 쫓겨 가면 그 눈 도루 내 것 되지 갈 테 있나?”

“일인들이 쫓겨 간다든가?”

“그럼 백 년 살까?”

또 누구는 수작을 바꾸어,

“일인들이 쫓겨난다지?” 한다 치면,

“그럼!”

“언제쯤 쫓겨 가는구?”

“예구 요 맹추야. 호 허풍선이야. 우리나라 상갑님을 쫓어 내구 저희가 왕 노릇을 하는데 쫓겨 가?”

“자넨 그럼 일인들이 안 쫓겨 가구, 영영 그대루 있으면

좋은 건 무언가?”

“종기루 할 말이야 일러 무얼 하겠나만, 우리 종구픈 대루 세상 일이 돼 준다던가?”

“그래두 인제 내 말을 일러 때가 오너니.”

“괜히 눈 팔구섬 할 말 없거든랑 국으루 잠자꾸 가만히나 있어요.”

“체에, 내 눈 내가 팔아먹는데, 죄 될 일 있나?”

“걸 누가 죄라니?”

“길천이한테 눈 팔아먹은 놈이 한덕문이 하나뿐인가?”

“누가 눈 판 걸 나무래? 희떠 장담을 하니깐 그러는 거지.”

“희떠 장담인지 아닌지 두고 보잔 말야.”

이로부터 한덕문은 그 말로 인하여 마을과 인근에서 아주 호가 났고, 어느 겨울인지 그것이 한 ㉠속담까지 되었다.

(중략)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 들 하드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딴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 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

“그렇죠.”

“홍, 가만둬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 나와 가지구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딴다든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밭*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간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루 들어?”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홍, 둘러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보게나. 평계 없는 무덤 있던가? 저 병신년에 원놈(군수) 김가가 우리 눈 열두 마지기 뺏을 체두 평젠 다 있었드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렐 하실 게 아니라, 기대리구 있노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앗두록 처단을 하겠죠.”

“일없네.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

십육 년두 나라 없이 살아 왔을려드냐. 아니 글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독립 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 채만식, 「논 이야기」 -

- * 회머운: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는.
- * 위정: '일부러'의 사투리.
- * 호가 나다: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다.
- * 멧갓: 나무를 합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서술자가 없이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일제의 토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토지의 소유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 작품은,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 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고 있다.

- ① '길천'은 '한덕문'의 토지를 강제로 뺏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제도적인 수탈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해방 후에도 토지의 소유주가 '길천'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구장'은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는 인물이군.
- ③ '한덕문'의 '친구'는 논을 판 '한덕문'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신이 판 논을 자신이 다시 구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한덕문'은 정부의 토지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이군.
- ⑤ 해방 후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한덕문'은 독립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 인물이군.

30. ㉠은 '한덕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 ㉠의 내용에 대한 추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짓대 없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②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③ 목표를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④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 ⑤ 자신이 잘못을 해 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이겠군.

(수능 특강 - 이청준, 「눈길」 // 고1, 2014.11)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고 나섰다. 별달리 노인을 달랠 말이 없으니, 지나간 일이나마 그렇게 넓게 살던 옛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그것은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 살림을 해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하여 기분을 바꿔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그건 또 언제나 가난한 살림만을 보고 가게 하는 부끄러운 머느리 앞에 당신의 자존심을 얼마간이나마 되살려내게 할 가외의 효과도 있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나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제. 다섯 칸 겹집에다 앞뒤 터가 운동장이었더니라…….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나. 남의 집 된 지가 이십 년이 다 된 것을…….”

“그래도 어머니는 한때 그런 좋은 집도 살아보셨으니 추억은 즐거운 편이 아니시겠어요? 이 집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뎨 그런 기억이라도 되살려보세요.”

“기억이나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야.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어지러운 것을.”

“하긴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집에 사셨던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사시는 형편이 더 짜증스러워지기도 하시겠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말씀예요…….”

노인과 아내는 잠시 그렇게 위론지 닛두런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중략)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 옷케 이야기였다. 십칠팔 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K지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나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엘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지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빈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 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A]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나.”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 저녁을 지어 내왔고, 그날 밤을 거기서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는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지내게 해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 맘 편히 눈을 붙이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썰렁한 집안 분위기가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건만.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 이불 한 채와 옷케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 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히 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케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내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런 내력이 숨겨져 온 옷케였다. 떠돌이 살림에 ㉤ 다른 가재 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이십 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온 옷케였다.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온 물건이었다. 노인에게 빛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지내다가도 그 옷케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빛 문서를 만난 듯 기분이 꺼림칙스러워지곤 하던 물건이었다.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노인의 방을 들어선 순간에 벌써 기분을 불편스럽게 해오던 옷케였다. 그리고 끝내는 이틀

밤을 못 넘기고 길을 다시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도 알고 보면 바로 그 옷케의 허물이 컸을지 모른다.

아내도 물론 그 옷케에 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그 옷케에 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아내는 일부러 그 옷케 이야기를 꺼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내가 바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걸 알고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콧속을 후벼대는 못된 버릇이 되살아날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목은 빛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노인이 치사하게 그 목은 빛 문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덤빌 수도 있었다.

— 그래 보라지. 누가 뭐래도 내겐 절대로 빛진 게 없으니까. 그래 본들 없는 빛이 생길 리가 있을라구.

나는 거의 기구*를 드리듯 눈을 감고 기다렸다.

- 이청준, 「눈길」 -

* 기구: 원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빌고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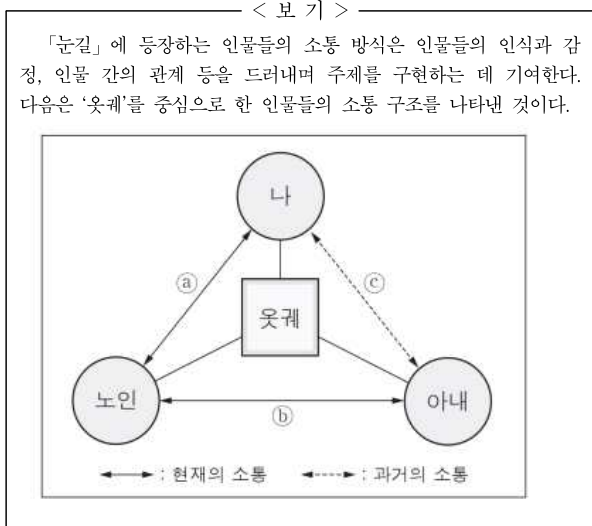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짙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38. ㉠ ~ ㉥에서, [A]에 내재된 인물의 심리가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9. <보기>를 참고하여 엮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㉞를 엮는 ‘나’는 ‘옷케’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바심을 느끼고 있군.
- ② ‘아내’는 ㉞를 시도하기 전에 ㉟를 통해 ‘옷케’에 대한 내력을 이미 알고 있었군.
- ③ ‘나’는 ‘옷케’의 의미를 통해 ‘아내’와의 소통 부채를 해소하고자 ㉞를 엮고 있군.
- ④ ‘아내’는 ㉞에서 ‘옛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옷케’에 얽힌 사연을 이끌어 내고 있군.
- ⑤ ‘나’는 ‘아내’가 ㉞에서 ‘옷케’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어 ㉟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도했다고 추측하는군.

(수능 특강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고1, 2015.09)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지러는 겹이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가) 길의 좁은 까닭에 세 사 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가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기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춧빛 연기가 밝기운 속에 흘러서 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뎡이 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가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 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 문에 발끈 뒤집혀 오죽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잖나. 하나 처녀의 꼴은 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연어 새끼 낳고 걱정 늘구 생각만 해두 진저리나지……. 그러나 늘그막까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 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두박두박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서 큰길로 띄어졌다. (나) 꿈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시절이던데. 총각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쉽게 생각 말게.”

“처, 천만예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 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꺾꺾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맘이 등을 한바탕 쪽 찢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날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 들었다. 금방 맘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뼈를 쪼렸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 풀이 무어겠소.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어나서부터 이 것이죠.”

“총각 낫세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들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채었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흘칠 듯하였다. (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밟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31. (가)~(다)의 행렬을 아래와 같이 그림 기호로 나타내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		□
□	◇ □ ○	
○		◇ ○

- ① (가)의 행렬은 공간적 제약에서 비롯한 것이다.
- ② (나)의 행렬은 대화 참가자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다)의 행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④ (가)에 비해 (다)에서 □의 역할은 커진다.
- ⑤ (가)에서 (다)로 전개될수록 ◇와 ○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3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곳’은?

— <보 기> —

떠돌이 장꾼인 허 생원은 ‘이곳’에서 수직적으로 이동하며 거듭 시련을 겪은 후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한다.

- ① 산허리
- ② 산길
- ③ 큰길
- ④ 고개
- ⑤ 개울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자연 배경, 현재와 과거의 연결 구조, 한국적인 소재의 선택, 서정적 문체 등이 조화를 이루어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중심인물들의 관계가 밝혀지는 탐정식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 ① 허 생원의 옛 추억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 ② 한국적 소재인 핏줄 찾기 이야기라서 독자가 쉽게 공감하겠군.
- ③ 허 생원의 과거 일이 작가의 글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져 독자에게 전달되었군.
- ④ 허 생원과 동이의 대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⑤ 허 생원은 동이 모가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탐정식 질문을 하고 있군.

(수능 특강 - 이청준, 「눈길」 // 고1, 2017.09)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그 아이들의 할 어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 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K사에서 공부하며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있던 '나'는 형이 재산을 탕진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온다. 당시 노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새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게 하였다. 다음날 새벽 노인은 눈길을 헤치며 차 타는 곳까지 '나'를 바라다준 후 홀로 눈길을 되돌아왔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잖나. 눈발이 그친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잖나.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굵이 굵이 돌아온 ㉡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야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야그 냇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야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굵이 굵이 외지지만 한 그 산길을 저 야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잖나. 오목오목 디더 눈 그 야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야그 앞길만 밟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저렇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을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잣등 위에 눈을 깔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젠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답이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한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엔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면서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노인뿐이었다.

“가만 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뺏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내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것들일 테 마련이 안됐잖나.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었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갖는 연기가 한참인데 그렇게 ㉢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자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

3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삽화처럼 나열하였다.
-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 ③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였다.
- ④ 외부 상황과 관련 없이 떠오르는 인물의 의식을 기술하였다.
- ⑤ 공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었다.

37.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한다.
- ② ㉠과 ㉡에는 동일 인물의 발자국이 있다.
- ③ ㉠과 ㉡의 발자국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노인의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 ⑤ ㉡은 ㉠과 달리 노인에게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

38.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이 소설에서 ‘노인’으로 표현되는 어머니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 버린 집을 바라봅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하룻밤 재웠죠. 햇살은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서 만물을 속속들이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햇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에 드러난 ‘노인’의 심리를 말해볼까요?

학생 : 노인은 ()

- ① 아들을 떠나보내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서러웠을 것입니다.
- ② 자식과 주고받을 것이 없는 관계가 된 것이 슬펐을 것입니다.
- ③ 자신이 베푼 사랑을 알아주지 않은 아들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 ④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 미안했을 것입니다.
- ⑤ 아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한 삶이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수능 특강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고3, 2014.03 B형)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零落)하였다. 모시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맥고모자를 쓴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다. 구보는 망설거린다. 그대로 모른 채하고 지날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다.

[A] “이거 얼마 만이야, 유(劉)군.
그러나 벗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B]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쩌서 그렇게 비울 수 없었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맞으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나 벗은, 그만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린다.

[C]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 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 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고,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퍼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쓌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드란: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줌.

*쓰메에리: 목을 둘러 바깥 여미게 지은 양복.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을 이동하며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35. [A] ~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보와 '옛 동무'의 물리적 거리는 [A]에서는 가까워지며 [C]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 ② [A]에서 구보가 '옛 동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C]로 가면서 심화되고 있다.
- ③ [A]와 [C]에는 '옛 동무'에 대한 구보의 복합적인 감정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 ④ [A]에서 '옛 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반목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 ⑤ [B]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소통에 대한 구보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구보가 관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몸과 그 연장선인 그들의 행색이나 행동이다.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세계와 교섭하며 그 흔적을 내재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구보의 시선이 포착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병든 육체와 정신이다. 이는 식민지 근대에 대한 구보의 진단이자,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 ① '구보'가 '대학노트'를 꺼내 든 것은 '바세도씨병'을 앓는 '노동자'와 그를 대하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시대의 일면을 포착한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② '군중'들이 '온정'을 잃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모습에 '구보'가 '딱하고 가엾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병든 정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볼 수 있군.
- ③ '노파'의 '굳어 버린 안면 근육'과 '딸의 그지없는 효양'으로도 감동시킬 수 없는 '눈'은 육체적, 정신적 생기를 상실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캡 쓰고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의혹을 갖는 두 눈'에 지식인의 우울과 회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구보' 역시 '만성 위확장'을 앓는 환자라는 사실은 구보의 '고독'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군.

(수능 특강 - 염상섭, 「삼대」 // 고3, 2015.07 A형)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돈으로 의관이라는 벼슬을 산 조 의관은 족보인 대동보를 엮는 데 돈을 쓰며 ○○당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자는 문중의 요구를 받고, 조상훈은 이 문제로 육촌인 조창훈과 다툰다.

영감도 결단코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다. 어수룩이라니 거의 후반생을 셈과 ㉠주판으로 늙은 사람이었다.

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면서 천냥 만냥 판*으로 돌아다니거나 있는 집 사람 구석에서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는 조가의 떨거지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이 영감의 주머니끈을 풀게 할 도리가 없었으니까 족보를 앞장세우고 살고 굶고 하는 바람에 조침조침 쓰기 시작한 것이 삼천여 원 근 사천여 원을 쓰게 되고 보니 속으로 뽕뽕 앓는 판인데 또 ㉡○○당 할아버지를 앞세워서 오천 원 논란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천 원을 부른 사람도 그만큼 불려야 삼천 원은 우려 내려니 하는 것이요, 조 의관도 오천 원의 반절은 아무래도 또 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죽을 날이 알파하여 가니까 ×× 조씨 문중에서 자기가 들켜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이 세상에 남겨 놓고 가는 기념사업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려는 노릇이다.

그래서 요새로 부쩍 달고 치는 바람에 그러면 우선 ㉢천원 하나를 내놓을 터이니 오백 원은 산소를 꾸미는 데에 쓰고 오백 원은 묘막을 짓되 부족되는 것은 조상의 산소 근처에 있는 조씨들이 금력으로 보태든지 돈 없는 사람은 부역으로 ㉣흙 한 줌 때 한 장씩이라도 떠다가 힘으로 보태라고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위답*으로는 다소간 나중에 마련해 놓으라고 하였다. 조 의관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천 원 내놓고 이천 원 들인 생색은 내려니 하는 속다짐이다.

“그래야 결국 아저씨께서는 돈 천 원 하나밖에 안 내놓으신다니까 나중 뒷감당은 우리 발로다 돌아다니며 굶어모아야 할 셈이라네. 말 내놓고 안 할 수 있나! 이래저래 뺏골만 빠지고 잘못되면 시비는 우리만 만나고…….”

창훈이는 한참 앉았다가 혼잣말처럼 이런 소리를 한다. “장한 사업 하슈. ○○당 할아버지가 묘막 지어달라고, 산소 앞에 석물(石物)이 없어서 호젓하다고 하십디까?”

상훈이는 ‘합디까’라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겨우 ‘하십디까’라고 존대를 하였다. ○○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설픈다. 예수교인이라 하여 자기 조상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새로 모셔 온 십 몇 대조 할아버지라 하니 좀 낯설기 때문이다.

“그런 소린 아예 말게. 자네는 천주학을 하니까 이런 일에는 반대인지 모르지만 조상 없이 우리 손이 어떻게 퍼졌으며 ㉤조상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 어떻게 우리 조씨도 그렇게 해서 남에 빠지지 않고 자자손손에 번창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창훈이는 못마땅한 것을 참느라고 더욱 이죽이죽 대거리를

한다.

(중략)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물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았으니 이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난봉자식이 난봉 핀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 돈을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보기는 처음이다.

[A] “그야 얼마를 쓰셨든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성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은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에 모녀와는 공교히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 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연줄이 닿아서 경에 모녀의 코빼기도 못 보았건만는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 안 것이다. 그러나 상훈이 내외끼리 몇 번 싸움질이 있던 외에는 노영감도 이때껏 눈 감아 버린 것이요, 경에가 들어 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도 부친이 채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 좌중(稠人廣座中)*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헛감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아버님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데…….”

상훈은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되신*이란 당한 일입니다.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학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

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언성을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하고 썼구나. 내가 무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나. 내가 죽으면 동전 한 닢이라도 너를 남겨 줄 줄 아니! 너는 이후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여도 한 푼 없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 두어라.”

하고 좌중을 둘러다보며 말을 잇는다.

[B]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테다.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 대든 하여 뒤를 깡그러뜨려 놓 것이니까 너는 인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내가 머리를 풀 테나? 거상을 입을 테나?”

- 염상섭, 「삼대(三代)」 -

- * 천냥 만냥 관: 노름관이라는 뜻.
- * 중시조: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조상.
- * 채위담: 추수한 것을 조상의 제사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논.
- * 재하자 유구무언: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에 대해 논쟁하지 못함을 이룸.
- * 조인광 좌중: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 * 치산: 산소를 매만져서 다듬음.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특정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장면을 교차하여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 의관이 급전적인 판단이 어설플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다.
- ② ㉡은 조 의관이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될 원인이 된다.
- ③ ㉢은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최대 금액이다.
- ④ ㉣은 묘막 짓는 일에 문중 사람들이 힘으로라도 보태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을 보여준다.
- ⑤ ㉤은 묘막 짓는 일에 불만인 상훈을 염두에 두고 창훈이 한 말이다.

36. [자본]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훈’은 이 일로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 ② ‘조 의관’은 이 일에 사용될 비용을 흔쾌히 내놓기로 했다.
- ③ ‘조가의 떨거지들’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 이 일을 제안했다.
- ④ ‘창훈’은 이 일로 문중에 재상이 탁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 ⑤ ‘조 의관’은 이 일로 자신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7.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상훈은 조 의관에게 장자로서 신임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 ② [A]에서 상훈은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 조 의관은 상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에서 조 의관은 [A]의 상훈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삼대」는 구한말을 대표하는 할아버지 조 의관, 개화기를 대표하는 아버지 조상훈,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손자 조덕기를 통해 1920~30년대의 생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근대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돈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봉건적 의식을 지닌 조 의관과 개화기 지식인이지만 위선적인 조상훈의 대립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강조하는 상훈의 모습에서 개화적 지식인으로서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 ② 조 의관이 신분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데 돈을 들인 것을 통해 조 의관의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③ 조 의관의 비난에 상훈이 변명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개화적 의식은 지녔지만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인물이군.
- ④ 상훈이 조 의관과 조상을 섬기는 일로 언쟁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⑤ 조 의관이 재산의 반을 상훈이 아니라 덕기에게 상속하려는 것을 통해 돈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군.

(수능 완성 - 이문구, 「유자소전」 // 고3, 2016.07)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배짜리 고기간디그러?” /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벼덤 비싸더냐?”

[A]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그러. 벨어넨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 풀구실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 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 에 그 집에서 춤 봤구면.”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계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켜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녀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묻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뿔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판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썩어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 디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럽다 취했으니까 파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

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췌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탱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B]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일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아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뵙(부엌)에 제우(겨우) 지랑(간장)뵙이 읊으니 뵙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뵙술에 쩌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서볼 만할휴.”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 *드티다: 밀리거나 비켜나거나 하여 약간 틈이 생기다.

3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스페어 운전수’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수’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3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와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체를 사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유자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

국평일 배포 자료 EBS 현대 소설

by 교육청 정답

- 고1, 2014.03 「논 이야기」 28. ③ 29. ⑤ 30. ④
- 고1, 2014.11 「눈길」 37. ④ 38. ⑤ 39. ③
- 고1, 2015.09 「메밀꽃 필 무렵」 31. ④ 32. ④ 33. ④
- 고1, 2017.09 「눈길」 36. ② 37. ⑤ 38. ⑤

- 고3 2014. 03 B형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4. ③ 35. ④ 36. ④
- 고3 2015. 07 A형 「삼대」 34. ① 35. ③ 36. ⑤ 37. ③ 38. ③
- 고3 2016. 07 「유자소전」 34. ④ 35. ② 36. ⑤